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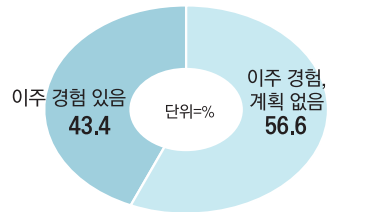
## 노벨경제학상 머튼 MIT교수의 은퇴후 연금설계 희망소득 정한후 위험자산 비중 조절하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 활용법을 비롯한 은퇴 전략을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치고 있다. <김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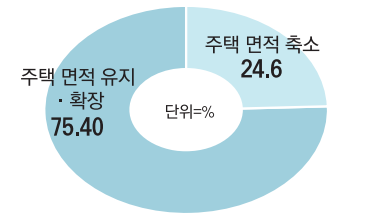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그래픽 재테크

#### 60대 은퇴자 이주 계획



\*전국 16개 시·도 60대 은퇴자 1002명 대상. 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이주 시 주택 면적



### 60대 은퇴자 56% “집 옮길 계획 없어”

“60대 은퇴자들은 현금 마련과 주거 편의를 위해 주택 면적과 비용을 줄인다?”

이 같은 일반적 통념과 반대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전국 16개 시도 60대 은퇴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56.6%는 이주 경험 혹은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주 경험이 있는 317명 가운데 주택 면적이나 가격(보증금) 등 비용을 축소할 사례는 각각 24.6%(면적)와 33.1%(가격)에 그쳤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0대 은퇴자의 주거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이나 친족·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 활발하게 이주할 것이라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라며 “60대에 은퇴하더라도 이주 경험이 없거나 당분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래에셋연구소 측은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은퇴자산 관리 차원에서 볼 때 주택 비용 축소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재연 기자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 교수가 지난 10년간 고민한 문제가 있다. 바로 은퇴 후 살아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다. 머튼 교수는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일해서 번 소득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은퇴 이후 적절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면서 “IQ가 아주 높은 물리학자도 어려울 정도로 은퇴설계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 보유 자산·수익률 늘리는 전통방식 탈피 無錢長壽 대비 ‘85세 이후 장수보험’ 필요

#### ▶ 관련기사 B3면

지난 8일 머튼 교수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퇴연금 확보를 위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매일경제는 머튼 교수를 만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그의 연구 결과를 자세히 들어봤다.

머튼 교수는 기존의 은퇴와 노후설계에 대한 것은 모두 잊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은퇴할 때까지 10억원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 주식에 투자하라는 조언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그보다는 은퇴 후 자신이 얻고자 하는 소득을 먼저 결정하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내가 얼마를 저축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선택하라고 주문했다. 보유한 자산을 늘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튼 교수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원하는 은퇴 후 소득과 월 저축액, 은퇴 시기를 입력하면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듯이 한눈에 달성 가능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튼 교수는 “1977년에는 개인별 맞춤형 은퇴설계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머튼 교수는 장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장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수 보험은 85세 이후까지 생존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노령화 시대 ‘무전장수(無錢長壽)’가 최대의 리스크가 된 만큼 보험을 통해 이를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머튼 교수는 은퇴설계가 단지 개인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은퇴자금 마련을 연구한 것은 이것이 현실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며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수십만 수백만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덕주 기자

**세상에 따뜻한 잔소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화생명에서 시작한 따뜻한 잔소리 이야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도록, 더 행복하도록, 더 잘 되도록 당신도 따뜻한 잔소리를 건네주세요.

당신, 작년에 입던 옷도 예쁘던데~

우리딸, 12시간엔 잠에와~

아빠, 술 좀 줄여요~

여보, 운동 좀 해요 걱정돼~

어머님, 장래를 물어지겠다. 아버지랑 얼굴 좀 보자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혜택!**

가치를 결합하면 혜택을 주는 **가족결합 서비스**

고령과 고가액이 서비스에 가입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현금 혜택과 귀환OIA 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서비스

금융상품을 결합하면 혜택을 주는 **상품결합 서비스**

서비스 가입 후 24시간의 금융상품에 한 1만원 이상 투자 시 현금 혜택과 귀환OIA 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서비스

“당기 100만 원 이상 납입 시 100% 포인트 적립”

“무원CMA/IF형(만)”? 금융상품(연금, 퇴직, 연금)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100%까지 포인트로 적립, 환입하는 데에 구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KDB대우생명의 CMA형입니다.

고객센터 1588-3322 KDB대우증권